

충남리포트 제83호 2013. 08. 23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이 관 료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rlee@cdi.re.kr)

도 묘 연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politicus21@ynu.ac.kr)

목 차

< 요 약 >

1. 문제제기
2. 분석내용과 자료수집
3.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4. 결론 및 정책제언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을 사례로 활동영역별로 나타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지역 자치, 복지,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낮고 중심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특정한 기관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에서 거대한 혹은 중규모의 하위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가 확장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네트워크가 특정한 단체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협력네트워크가 미분화된 구조적 한계점을 갖고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협력활동의 지속성 확보와 고착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활동에 대한 질적 강화와 양적 확대가 필요함.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에 따라 특성화된 하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사회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 본 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충청남도를 사례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4호, 2012)”의 일부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임.

1. 문제제기

-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선진 외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위기, 완전고용의 종식,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음.
 - 특히 사회역량의 제고, 시민사회의 통합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대안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음 (M. Mendell, 2005).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새로운 역할 규정을 위한 시도들이 정책적·학문적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음.
 - 민주화 초기 단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권위적인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중추세력으로서 시민들의 권익을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정책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년) 실시 이후에는 국가실패 및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자 및 공급자의 역할까지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음.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책행위자 및 사회서비스 전달자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지역자치, 환경, 복지, 문화, 교육, 노동·농어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도입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충남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활동영역별로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밀도와 중심성, 하위네트워크, 핵심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규명하는데 중점을 둠.

2. 분석내용과 자료수집

1) 분석내용

-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사례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특성을 활동영역별로 구분하여 규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특성을 밀도와 중심성, 하위네트워크, 그리고 핵심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하였음.
 - 우선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밀도와 중심성, 그리고 하위네트워크를 통해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를 분석함.
 - 그리고 핵심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떠한 단체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확인하도록 함.
-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기관을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국회, 광역 및 지방의회), 정당, 기업(공기업, 농협, 금융), 공공기관(경찰, 소방서, 군부대, 박물관, 병원, 초중고), 연구소 및 대학, 사회단체(사회복지기관, 종교), 언론기관으로 분류하였음.

-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은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자치, 복지,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 및 농어민, 경제, 북한 및 통일, 여성, 그리고 청소년의 11가지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신문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구축된 331건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을 활동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전 체		331	100.0
지역자치		88	26.6
복지		89	26.9
환경		56	16.9
문화		28	8.5
교육학술		38	11.5
기 타	종교	0	0.0
	노동 및 농어민	7	2.1
	경제	3	0.9
	북한 및 통일	3	0.9
	여성	14	4.2
	청소년	5	1.5

- 먼저 지역자치는 88건(26.6%), 복지는 89건(26.9%), 환경은 56건(16.9%), 문화는 28건(8.5%), 교육학술은 38건(11.5%), 종교는 0건(0.0%), 노동 및 농어민은 7건(2.1%), 경제와 북한 및 통일은 각각 3건(0.9%), 여성은 14건(4.2%), 그리고 청소년은 5건(1.5%)으로 나타남.
- 따라서 상대적으로 협력활동의 건수가 낮은 종교, 노동 및 농어민, 경제, 북한 및 통일, 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을 독립적인 활동영역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래서 본 연구는 11개의 활동영역을 지역자치, 복지, 환경, 문화, 교육학술, 그리고 기타의 6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음.

2)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전문 소프트웨어인 UCINET을 이용하였음. 구체적인 분석내용과 분석방법은 <표 2>와 같음.
 - 우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밀도와 중심성은 밀도(density)와 연결중앙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수행하고, 하위네트워크(sub-network)는 약한 구성분석(weak components analysis)을 수행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하위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Netdraw를 이용해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핵심네트워크(super network)를 분석하기 위해 파당분석(clique analysis)과 강한 구성분석(strong components analysis)을 수행하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밀도와 중심성, 하위네트워크, 그리고 핵심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밀도와 중심성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다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망의 지속성과 집중도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밀도는 연결가능한 총 관계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수의 비율, 즉 $\frac{1}{n(n-1)/2}$ 로 정의됨(김용학, 2007).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밀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가짐. 그리고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가 갖는 집중도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중심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특정 행위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밀도와 중심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밀도와 중심성이 높음을 의미함.
 -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하위네트워크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약한 구성분석을 수행함. 여기서 약한 구성분석이란 1번이라도 협력관계를 갖는 경우

를 포함하게 됨.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Netdraw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함.

-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핵심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파당분석과 강한 구성분석을 수행함. 여기서 핵심네트워크는 1회적인 협력관계가 아닌 2번 혹은 3번 이상의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한 하위네트워크를 의미함. 파당분석을 통해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하위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고, 구성분석의 경우는 강한 협력관계를 가지는 하위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음(J. Scott, 2000).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네트워크를 확인하는 파당분석의 결과와 강한 구성분석의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할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음.

〈표 2〉 분석내용 및 방법

활동영역	분석내용	분석방법
지역자치 복지 환경 문화 교육학술 기타	밀도, 중심성	밀도, 연결중양성
	하위네트워크	약한 구성분석, 네트워크 그래프
	핵심네트워크	파당분석, 강한 구성분석

3) 자료수집

-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충청남도는 태안 기름유출사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지역현안을 둘러싸고 지방정부

와 시민사회 간의 부분적인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내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협력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임.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전·충남지역의 3대 일간지(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 충청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2010년 기준)에 등록된 343개 단체의 개별 명칭을 입력하여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고, 신문 기사 검색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2개년으로 설정하였음.
 - 신문 기사 검색결과 343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기사는 총 835건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동일 활동에 대해서 타 신문에 중복 게재된 신문 기사 131건을 제외한 704건의 신문 기사를 DB로 구축하였음.
- 이상의 작업을 통해 구축된 704건의 DB를 기준으로 할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 중에서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351건(49.9%)이고, 협력하지 않은 경우는 353건(50.1%)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협력활동을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단체와 함께, 공동, 연대 등으로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였음. 즉 신문기사에서 함께, 공동, 연대 등의 협력적 단어가 있는 경우를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으로 구분한 것임.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한 351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신문 기사 상에서는 다른 단체와 협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협력을 한 단체의 명칭이 신문 기사에 나타나지 않은 20건의 기사를 제외한 331건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음.

3.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1) 분석자료의 일반특성

(1) 협력기관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의 DB 상에서 총 331건의 협력활동이 있었고, 이들 협력활동에는 총 631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153개(24.2%)이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은 478개(75.8%)임.
 -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 상의 343개 단체 중에서 44.6%가 다른 기관과 1번 이상의 협력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기관을 구분해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41개(7.9%)인 반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은 478개(92.1%)임.
 -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기관

(단위: 개소, %)

구분	총 기관수	협력주관기관	협력대상기관
전체	631 (100.0)	112 (100.0)	519 (100.0)
비영리 민간단체	153 (24.2)	112 (100.0)	41 (7.9)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	478 (75.8)	-	478 (92.1)

(2) 협력기관수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1회 협력활동에 평균적으로 5.21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협력기관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치가 평균 8.44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학술이 5.50개 기관, 환경이 5.2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복지와 문화, 기타는 각각 3.65개, 2.95개, 2.13개 기관이었음.
 - 따라서 지역자치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1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어떤 기관이 몇 개의 기관과 협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모든 기관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기관수

(단위: 개소)

구분	협력기관수	분석에 사용된 협력기관수
전체	5.21	2.74
지역자치	8.44	3.57
복지	3.65	2.89
환경	5.27	2.57
문화	2.96	2.11
교육학술	5.50	2.03
기타	2.13	1.72

- 실제 분석에 사용된 협력기관수는 평균 2.74개임.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치가 3.5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복지가 2.89개, 환경이 2.57개로 나타남. 반면 문화는 2.11개, 교육학술이 2.03개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참여기관이 많은 지역자치와 교육학술, 문화의 경우는 실제 참여기관에 비해서 신문 기사에 제시된 단체의 명칭이 많이 축소되었음.
 -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에 사용된 협력기관수는 신문에 해당 기관명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3) 협력목적 및 공간범위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건수 331건을 활동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은 264건(79.8%)이고, 시민권익 대변은 67건(20.2%)인 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6개의 활동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문화 영역에서는 협력활동의 92.9%가 사회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목적 및 공간범위

(단위: 건, %)

구분		전체	지역 자치	복지	환경	문화	교육 학술	기타
협력 목적	전체	331 (100.0)	88 (100.0)	89 (100.0)	56 (100.0)	28 (100.0)	38 (100.0)	32 (100.0)
	사회서비스 제공	264 (79.8)	62 (70.5)	77 (86.5)	44 (78.6)	26 (92.9)	28 (73.7)	27 (84.4)
	시민권익 대변	67 (20.2)	26 (29.5)	12 (13.5)	12 (21.4)	2 (7.1)	10 (26.3)	5 (15.6)
공간 범위	전체	331 (100.0)	88 (100.0)	89 (100.0)	56 (100.0)	28 (100.0)	38 (100.0)	32 (100.0)
	시군	278 (84.0)	70 (79.5)	77 (86.5)	46 (82.1)	28 (100.0)	34 (89.5)	23 (71.9)
	대전충남	31 (9.4)	8 (9.1)	7 (7.9)	7 (12.5)	0 (0.0)	3 (7.9)	6 (18.8)
	국내	18 (5.4)	8 (9.1)	5 (5.6)	3 (5.4)	0 (0.0)	0 (0.0)	2 (6.3)
	국외	4 (1.2)	2 (2.3)	0 (0.0)	0 (0.0)	0 (0.0)	1 (2.6)	1 (3.1)

- 한편 협력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인 것으로 나타남. 즉 협력의 공간적 범위가 해당 시군인 경우가 287건 (8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전·충남 지역이 31건(9.4%)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6개의 활동영역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문화 영역의 경우는 모든 협력활동이 해당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은 사회서비스 제공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주로 해당 시군 단위에서 이루지는 특징을 갖고 있음.

2) 밀도와 중심성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수는 519개이고, 연결망 수는 906개이며, 네트워크 밀도는 0.0309, 그리고 중심성은 0.780임.
- 그리고 6개 활동영역별로 협력기관수, 연결망 수, 밀도, 중심성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지역자치 영역의 총 협력기관수는 213개, 연결망은 314개, 밀도는 0.0164, 그리고 중심성은 0.780으로 나타났고,
 - 복지 영역은 168개, 257개, 0.0156, 0.523으로, 환경 영역은 99개, 144개, 0.0124, 0.521로 나타남.
 - 그리고 문화 영역은 53개, 59개, 0.0068, 0.589, 교육학술 영역은 59개, 77개, 0.0078, 0.617, 기타 영역은 55개, 42개, 0.0069, 0.196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각 6개 영역별로 구분해 보아도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높게 나타남.
 - 특히 지역자치, 교육학술, 그리고 문화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1회적 성격의 단순한 협력의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시에 특정한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지역자치, 교육학술, 문화 영역에서 더욱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표 6〉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밀도와 중심성

(단위: 개)

구분	협력기관수	연결망	밀도	중심성
전체	519	906	0.0309	0.780
지역자치	213	314	0.0164	0.780
복지	168	257	0.0156	0.523
환경	99	144	0.0124	0.521
문화	53	59	0.0068	0.589
교육학술	59	77	0.0078	0.617
기타	42	55	0.0069	0.196

3) 하위네트워크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에는 크게 17개의 하위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지만, 484개의 단체가 하나의 거대한 하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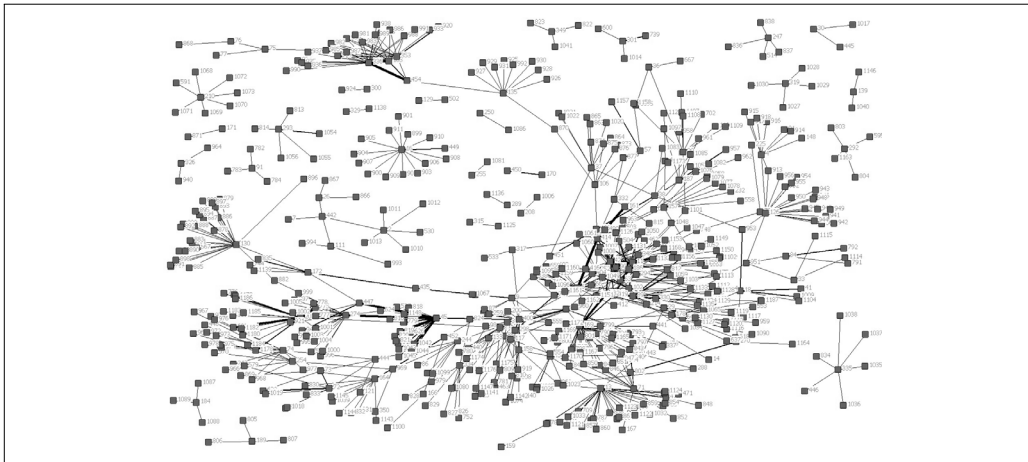
- 이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631개 기관의 76.7%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는 하위네트워크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단일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활동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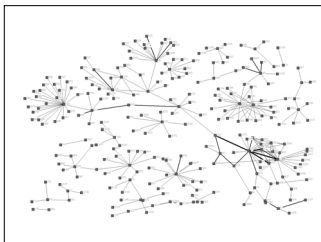
- 먼저 지역자치 영역의 경우, 총 239개의 단체가 14개의 하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 중에서 1개의 네트워크에 110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하위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20~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하위네트워크가 2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 영역의 경우는 총 177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하위네트워크는 14개가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영역은 지역자치 영역과 달리 거대한 하위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고, 20~30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규모의 하위네트워크가 4개가 존재하고 있음.
- 환경 영역의 협력네트워크는 다른 영역과 달리 하위네트워크의 수가 작게 나타남. 총 103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 영역의 네트워크는 5개의 하위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고, 1개의 하위네트워크에 80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하위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문화 영역의 경우는 총 58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하위네트워크는 모두 9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문화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력네트워크가 미발달된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교육학술 영역의 경우는 총 65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하위네트워크는 4개가 존재하고, 1개의 하위네트워크에 53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교육학술 영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자치, 환경, 복지 영역에 비해 하위네트워크가 미발달되었으나, 문화 영역에 비해서 협력네트워크 구

조가 잘 갖추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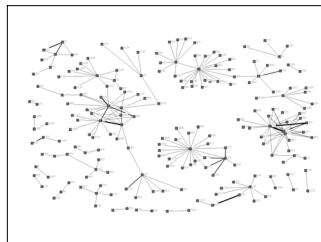
- 기타 영역의 경우 총 47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하위네트워크는 7개인 것으로 나타남. 기타 영역의 경우는 문화 영역과 유사하게 협력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지 못한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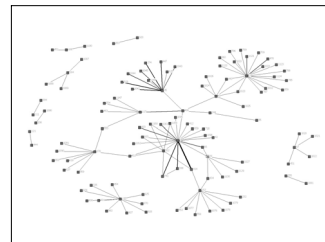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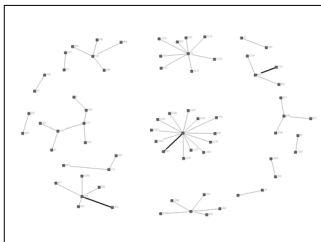
[지역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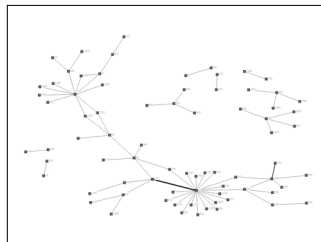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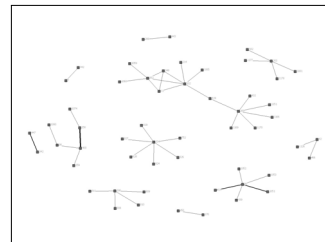
[환경]



[문화]



[교육학술]



[기타]

(그림 1)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거대한 하나의 하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활동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자치, 복지, 환경 영역의 경우,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거대한 혹은 중규모의 하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 교육학술, 기타 영역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위네트워크가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핵심네트워크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안에서 핵심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해 파당분석과 강한 구성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7>과 같음.
- 우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파당분석에서는 총 5개의 핵심네트워크가 나타남.
 - 파당1은 “천안KYC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천안YWCA - 천안아산경실련”, 파당2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 전화”, 파당3은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 전화 - 천안여성회”, 파당4는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미래를 여는 아이들”, 파당5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아산시민모임 - 아산YMCA”이었음.
- 강한 구성분석에서는 2개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핵심네트워크가 확인되었음.
 - “천안KYC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아산시민모임 - 아산YMCA - 천안YWCA - 천안여성의 전화 - 미래를 여는 아이들 - 천안여성장애인연대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천안여성회”와 “당진군 여성단체협의회 - 당진YMCA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군협의회”로 나타남.

〈표 7〉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네트워크

구분	파당분석	강한 구성분석
전체	· 천안KYC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천안YWCA - 천안아산경실련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 전화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전화 - 천안여성회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미래를 여는 아이들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아산시민모임 - 아산YMCA	· 천안KYC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아산시민모임 - 아산YMCA - 천안YWCA - 천안여성의 전화 - 미래를 여는 아이들 - 천안여성장애인연대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천안여성회 · 당진군 여성단체협의회 - 당진YMCA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군협의회
지역자치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전화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YWCA - 천안아산경실련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YWCA - 천안여성의 전화 - 천안아산경실련
복지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미래를 여는 아이들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천안 YWCA - 미래를 여는 아이들 · 당진군 여성단체협의회 - 당진YMCA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군협의회
환경	-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아산시민모임 - 아산YMCA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문화	-	-
교육학술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회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회
기타	· 천안KYC - 천안여성의 전화 - 천안여성회	· 천안KYC - 천안여성의 전화 - 천안여성회

○ 이를 활동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지역자치 영역의 경우, 2개의 파당이 나타남. 파당1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 전화”가, 그리고 파당2는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YWCA - 천안아산경실련”이었음. 이들 2개의 핵심네트워크는 강한 구성분석의 결과에서는 1개의 네트워크로 나타남.
- 복지 영역의 경우는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미래를 여는 아이들” 1개의 파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한 구성분석

에서는 2개의 핵심네트워크가 나타남. 즉 천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천안 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천안 YWCA - 미래를 여는 아이들”과 당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군 여성단체협의회 - 당진YMCA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군협의회”가 핵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음.

- 환경 영역의 파당분석에서는 핵심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한 구성분석에서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아산시민모임 - 아산 YMCA -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핵심네트워크로 나타남.
- 문화 영역의 파당분석과 강한 구성분석에서 핵심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학술 영역과 기타 영역에는 파당분석과 강한 구성분석에 동일한 핵심네트워크가 나타남. 즉 교육학술 영역에서는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회”가,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는 “천안KYC - 천안여성의 전화 - 천안여성회” 핵심네트워크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네트워크는 지역자치, 복지, 교육학술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5개 세부 활동영역별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었음. 즉 활동영역별로 볼 때, 지역자치, 교육학술, 기타 영역에서 구축된 핵심네트워크는 모두 천안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었음.
- 그리고 복지와 환경 영역의 핵심네트워크는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을 이루고 아산, 당진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핵심네트워크는 활동영역의 측면에서는 지역자치, 복지, 환경, 교육학술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공간적 측면에서 천안, 아산, 당진의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반증적으로 지역자치, 복지, 환경, 교육학술 영역이 아닌 이외의 영역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을,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지역자치와 복지,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고, 기능적·공간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미발달된 수준이나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하위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네트워크는 특정한 단체와 특정한 영역,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 치중되어 있어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담보한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전제로 할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는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의 연결망과 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활동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연결망과 밀도는 6개 영역에서 모두 낮은 반면, 중심성은 지역자치, 교육학술, 문화 영역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지속성을 갖기 못한 1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단체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가 고착화되어 있음. 그러므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협력활동을 통한 정보교류와 자원활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또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이 특정한 단체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력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자치 영역에서 그 한계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지역자치 영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이 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됨.
- 둘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에는 전체 참여자의 76.7%가 참여하는 거대한 하위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활동영역별로 보면 지역자치, 복지, 환경 영역에서는 하위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반면, 그 외 영역은 하위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 따라서 지역자치, 복지, 환경 영역의 하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타 기관과의 상호작용의 이점을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들 3개 영역의 경우, 현재의 하위네트워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내에서 하위네트워크의 형성 및 분화는 하위네트

워크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하위네트워크의 확산을 유도하는 장점을 가짐.

- 예컨대,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과 총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 혹은 연대회의와 같은 정보인프라가 제공된다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현재 형성하고 있는 하위네트워크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확장될 것이고, 현재 하위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은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협력활동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심기관은 분화된 하위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전략적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임.

○ 셋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에는 핵심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영역적 측면에서는 지역자치와 복지 영역의 협력네트워크가, 공간적 측면에서는 천안, 아산, 당진의 협력네트워크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핵심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시민권의 대변자적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 주도의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이 창출되었다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지역자치, 복지, 환경, 교육학술 영역의 핵심네트워크는 특정한 단체만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력네트워크의 확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즉 천안YMCA, 아산YMCA, 천안KYC,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아산경실련 등의 특정한 단체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단체들이 6개 영역에

서 모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음.

- 또한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적 단체들이 공간적으로 천안, 아산, 당진 등의 특정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 다시 말해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은 영역별로 전문화·차별화된 핵심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한 도시(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정한 단체들이 협력활동을 수행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됨.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특정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은 것임.
- 결국 전문화되지 못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프로그램과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형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향후 협력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정책제언

- 이상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협력활동의 지속성 확보와 고착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활동을 질적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고, 양적 측면에서 확대해야 함.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에 따라 특성화된 하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즉 중요한 몇 개의 단체가 지역자치, 복지, 환경, 문화, 교육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문화·차별화된 영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민간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개별 활동영역에서 이미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지는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활동을 주도해 나간다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사회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환경, 복지, 교육학술 등 활동영역이 유사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자원의 부족임.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과 협력활동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를 교류하여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 관 료, krlee@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204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 · 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 · 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 · 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 · 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준문 · 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 · 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 · 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 · 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 · 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 · 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 · 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 · 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 ·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 · 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 · 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 · 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 · 권영현	2010. 4. 5
2010-06	아 · 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 · 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 · 윤정미	2010. 6.2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지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효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एको유지업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아·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이민정	2013.08.09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